

# “남해각 바다도서관 도서 기증받습니다”

8 / 배남길기자 | 승인 2023.05.31 19:36

남해각에 바다도서관 조성 추진...11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남해각 전경.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여행자 플랫폼 ‘남해각’에 ‘바다도서관’을 조성·운영하기로 하고 도서관에 전시될 도서를 기증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 여행의 출발점인 남해각의 매력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며 여가를 즐기고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남해각에 바다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출판된 국내 도서를 기증받을 예정이다.

남해각 바다도서관 조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 게시판 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namhaegaklib@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증 도서 표제지 내 기증자의 이름, 기증 날짜 등을 기입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각의 지리적·공간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바다도서관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여가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남해각은 지난 2021년부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 유니크베뉴’ 선정을 시작으로, ‘남해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자 편의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남해 대표 관광기념품을 발굴해 전시·판매하고 있다.



/배남길기자 pmg1@gnynews.co.kr